

# Global Trade Report

## 2018년 3월 수출 동향 - 지역별 수출 호부진 요인 및 특이 동향 -



# CONTENTS

## 목 차

### 요 약 / 1

---

#### I. 개요

---

- 2 | 2018년 3월 수출입 동향
- 2 | 지역별 수출 동향
- 3 | 품목별 수출 동향
- 3 | 기업규모별 수출 동향

#### II. 지역별 수출 호부진 요인 및 특이 동향

---

- 4 | 중국
  - 6 | 미국
  - 8 | 베트남
  - 10 | 일본
  - 12 | 인도
  - 14 | ASEAN
  - 16 | EU
  - 18 | 중남미
  - 20 | 중동
  - 22 | CIS
- 
- 24 | 참고1 : '18년 3월 지역별 13대 품목 수출 실적
  - 25 | 참고2 : 지역별·월별 수출 실적
  - 26 | 참고3 : 유망소비재·고부가가치 품목 지역별 수출 실적

## 요 약

- **(3월 수출입 동향)** 수출 515.8억 달러(전년동기대비 +6.1%), 수입 448.1억 달러(+5.2%), 무역수지 67.7억 달러 흑자 기록

< 3월 수출입 실적 >

(단위 : 억 달러, %)

구분	2017년		2018년		
	3월	1~3월	1월	2월	3월
수출	486(+13.1)	1,321(+14.6)	492(+22.3)	446(+3.3)	516(+6.1)
수입	426(+27.7)	1,164(+24.1)	457(+21.4)	417(+15.2)	448(+5.2)
무역수지	61	156	36	29	68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지역별 수출 동향)** 對중국·EU·일본·ASEAN 수출이 증가했으며, 특히 EU·중국 지역으로의 수출은 두 자리 수 증가를 달성. 중동·인도·중남미·베트남·미국·CIS 지역으로의 수출은 감소

국가	호조품목	부진품목
중국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제품, 컴퓨터	석유화학, 평판디스플레이, 철강, 무선통신기기
미국	일반기계,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 자동차부품, 철강, 가전
베트남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섬유류, 석유제품	일반기계,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가전
일본	석유제품, 철강, 일반기계, 석유화학	선박류, 평판디스플레이
인도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섬유류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ASEAN	반도체, 석유제품, 평판디스플레이, 선박류	일반기계, 석유화학,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EU	자동차, 선박류, 일반기계,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부품, 평판디스플레이, 가전, 석유제품
중남미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석유제품	선박류, 자동차,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중동	석유화학, 평판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 자동차부품, 가전
CIS	자동차, 일반기계,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부품, 가전, 평판디스플레이, 선박류

- **(품목별 수출 동향)** 13대 주력품목 중 7개 품목(반도체·일반기계·석유화학·석유제품·철강제품·섬유류·컴퓨터)의 수출 증가, 특히 반도체는 단일품목 사상 최초 월간 100억 달러 수출, 일반기계도 월간 사상 최대 수출 실적 기록

- **(기업규모별 수출 동향)** 2018년 3월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전년동월 대비 6.7%), 대기업은 6.5%증가, 중견기업은 3.4% 감소하였음. 수출비중은 대기업(58.9%), 중견기업(20.0%), 중소기업(19.3%) 순으로 중견·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이 전년동월 대비 1.9%p 감소함

\* 수출증감률(2018년 3월, 전년동기대비) : 중소기업(6.7%) > 대기업(6.5%) > 중견기업(△3.4%)

\* 중견·중소기업 수출비중 : 2017년 3월(41.2%) → 2018년 3월(39.3%)

# I. 개요

- **(3월 수출입 동향)** 수출 515.8억 달러(전년동기대비 +6.1%), 수입 448.1억 달러(+5.2%), 무역수지 67.7억 달러 흑자 기록
  - 전년 대비 조업일수 △0.5일 감소했음에도 3월 수출 사상 최초로 500억 달러 돌파 및 17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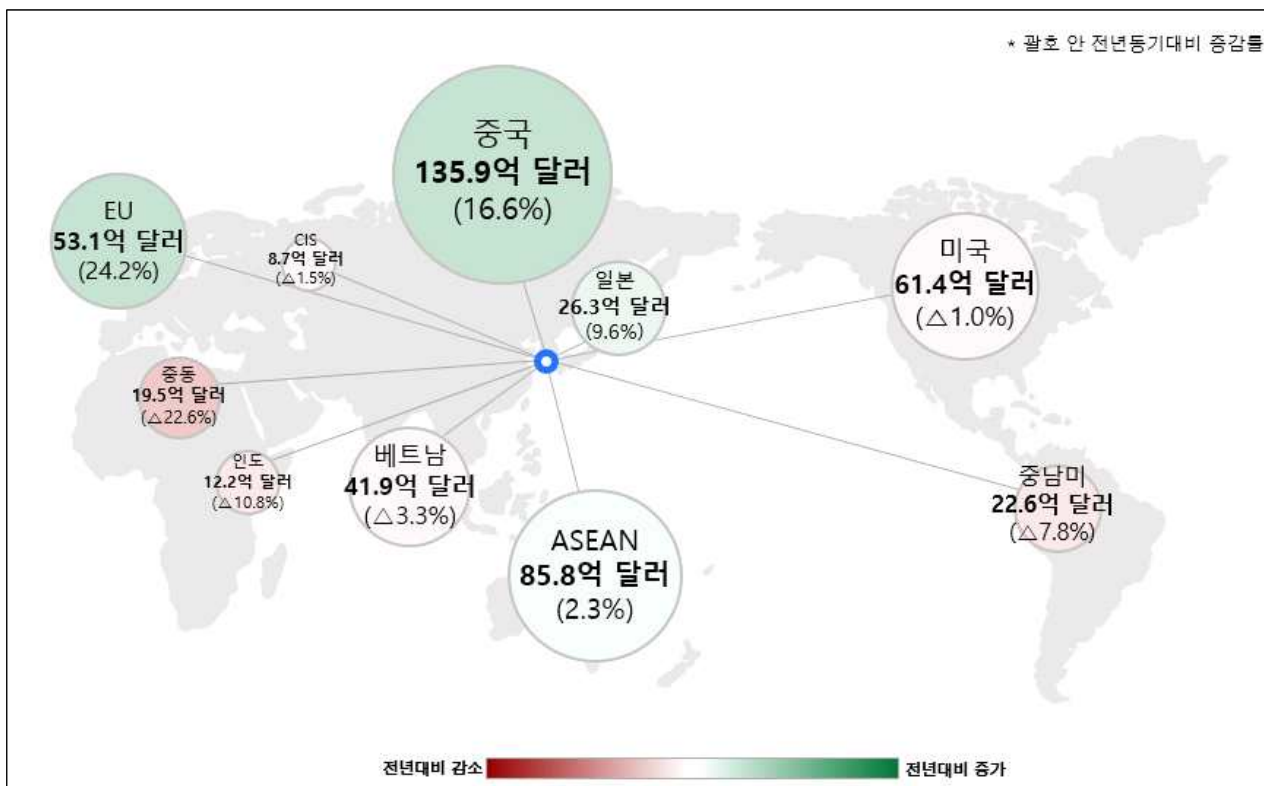
< 3월 수출입 실적 >

(단위 : 억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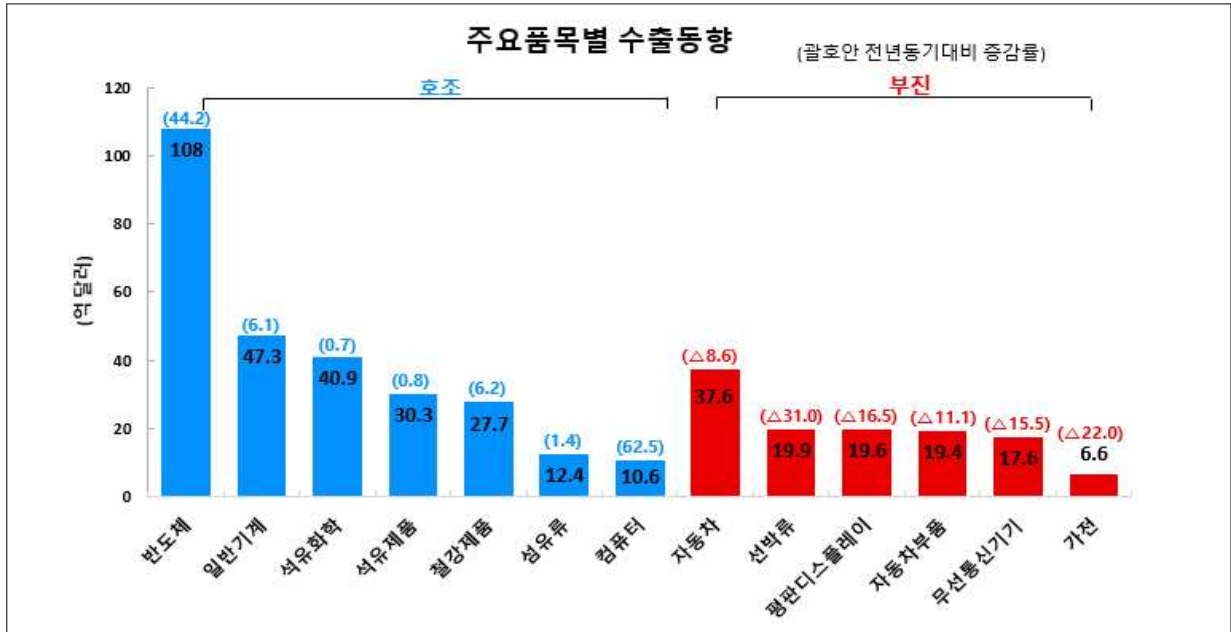
구분	2017년		2018년			
	3월	1~3월	1월	2월	3월	1~3월
수출	486(+13.1)	1,321(+14.6)	492(+22.3)	446(+3.3)	516(+6.1)	1,454(+10.1)
수입	426(+27.7)	1,164(+24.1)	457(+21.4)	417(+15.2)	448(+5.2)	1,322(+13.5)
무역수지	61	156	36	29	68	132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지역별 수출 동향)** 對중국·EU·일본·ASEAN 수출이 증가했으며, 특히 EU·중국 지역으로의 수출은 두 자리 수 증가를 달성. 중동·인도·중남미·베트남·CIS·미국 지역으로의 수출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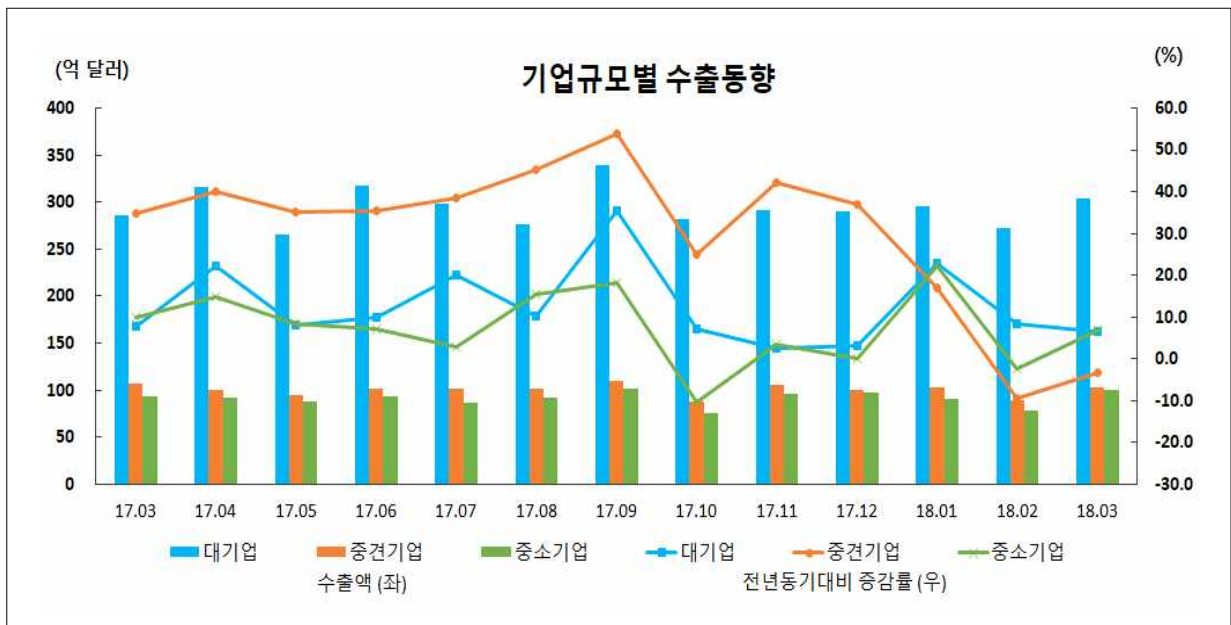
- **(품목별 수출 동향)** 13대 주력품목 중 7개 품목(반도체·일반기계·석유화학·석유제품·철강제품·섬유류·컴퓨터)의 수출 증가, 특히 반도체는 단일품목 사상 최초 월간 100억 달러 수출, 일반기계도 월간 사상 최대 수출 실적 기록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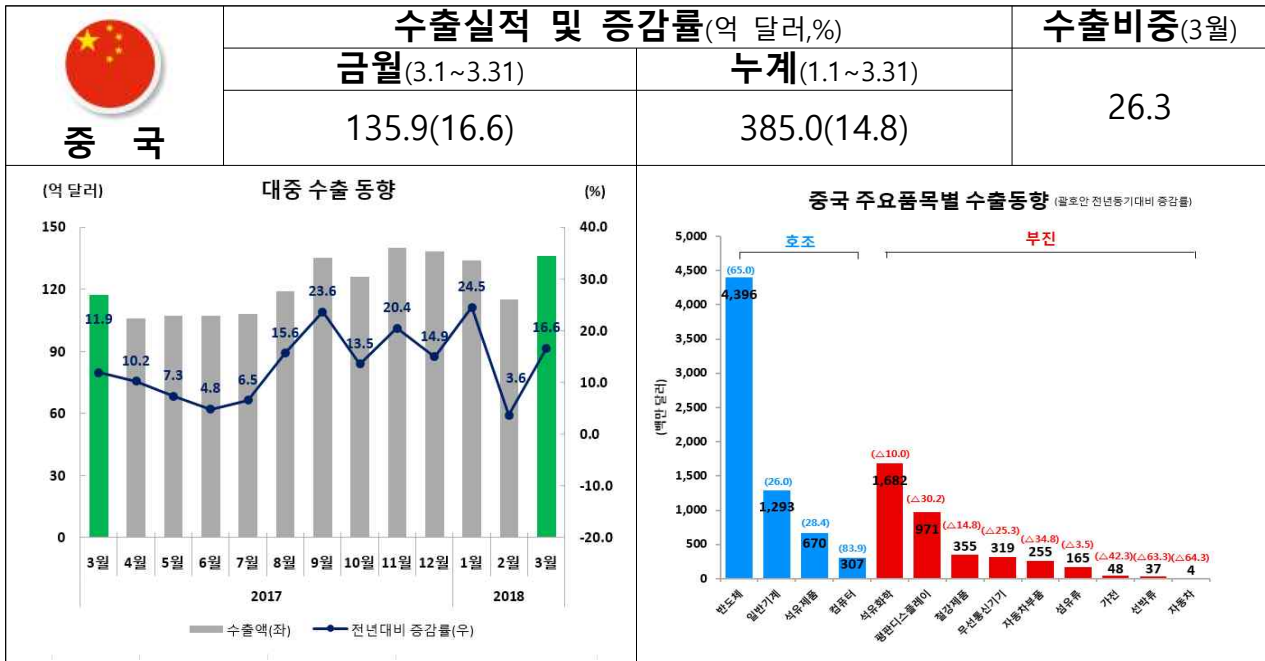
- **(기업규모별 수출 동향)** 2018년 3월에는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전년 동월 대비 6.7%), 대기업은 6.5%증가, 중견기업은 3.4% 감소하였음. 수출비중은 대기업(58.9%), 중견기업(20.0%), 중소기업(19.3%) 순으로 중견·중소기업 수출비중이 전년동월 대비 1.9%p 감소함

- \* 수출증감률(2018년 3월, 전년동기대비) : 중소기업(6.7%) > 대기업(6.5%) > 중견기업(△3.4%)
- \* 중견·중소기업 수출비중 : 2017년 3월(41.2%) → 2018년 3월(39.3%)



\* 자료원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II. 지역별 수출 호부진 및 특이동향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3월 동향)** 미국과의 통상분쟁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황을 누리는 등 중국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3월 對중국 수출은 반도체·컴퓨터 수출 호조에 힘입어 16.6%의 두 자리 수 증가율을 달성
- **(품목별 동향)** 반도체·일반기계·석유제품·컴퓨터는 수출 증가, 석유화학·평판디스플레이·철강·무선통신기기·자동차부품 등은 수출 감소
  - 반도체 (65.0% ↑) : 서버용 메모리시장 성장 및 주요 IT 기업의 데이터 센터 용 반도체 수요 증가로 수출 호조세 지속

**현장 정보**

- \* 2017년 중국의 집적회로 수입은 전 세계 수입액의 68.8%를 차지했으며, 이로 인해 집적회로 무역적자가 1,932억 달러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였음.
- \* 2018년 글로벌 반도체시장 성장률 전망치를 8.2%에서 15%로 상향조정하고, 반도체 시장 매출 증가율 전망치도 7.0%에서 9.5%로 상향조정함. (IC Insights / 세계반도체 무역통계기구, WSTS)

- 일반기계(26.0% ↑) : '일대일로' 정책 추진에 따른 기초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활성화로 기계 수입수요 증가

### 현장 정보

- \* '일대일로' 분야 국제협력 확대로 관련 국가간 무역액이 증가했으며, 특히 기초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의 안정적 추진으로 제조기계, 공정기계 등의 시장수요가 증가함.
- . 2017년 중국의 기계류 무역총액은 7,123억 달러로 10.01% 증가했으며, 수입액과 수출액이 각각 3,063억 달러(12.31%↑), 4,060억 달러(8.33%↑)를 기록함. (중국기계공업연합회)
- \* 2017년 중국의 공작기계 수요량은 18.7% 증가했고, 해외 수입량은 146.3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8.2% 증가함. 2018년에도 공작기계 수요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첨단기계 중심으로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중국 공작기계산업협회)

- 컴퓨터(83.9%↑) : 기업용 고급 컴퓨터 수요 증가 및 고사양 컴퓨터 교체 수요 확대로 수출 급증

### 현장 정보

- \* 기업용 집적회로 및 SSD 수요 증가로 컴퓨터 제품에 대한 수입 증가 지속됨. (新華網)
- \* 최근 출시되는 노트북에서 VR, AR 기능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노트북 교체수요 확대. 특히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영향으로 노트북의 디자인과 성능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초경량 고급사양 노트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中國產業信息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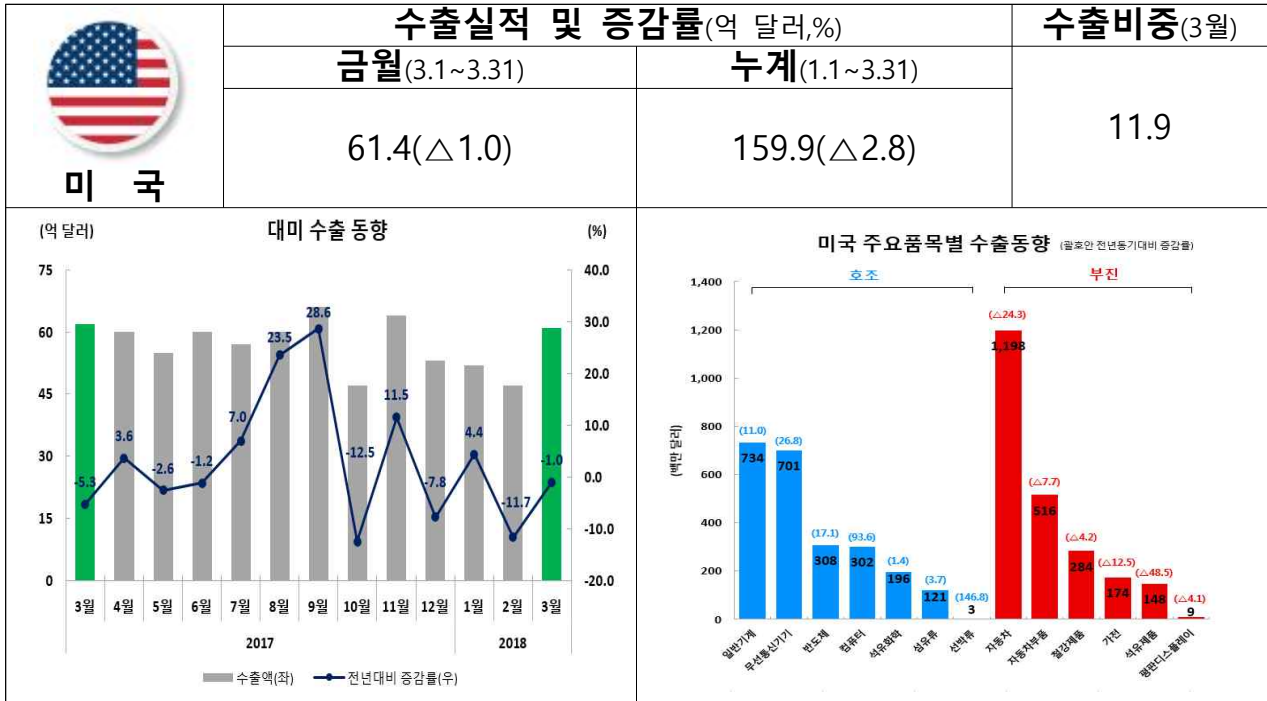
- 평판디스플레이(30.2%↓) : 휴대폰·TV용 패널 가격 하락 및 중국산 패널 공급 증가로 한국산 수출 감소

### 현장 정보

- \* 3월 TV용 패널 가격 전월 대비 하락 : 32인치 3%, 40인치 4%, 43인치 5%, 49인치 4%, 55인치 1% 하락
- \* 휴대폰 패널의 경우, 풀 스크린 패널이 주력으로 떠오름에 따라 공급이 크게 증가하여 가격하락세 보이고 있으며, 태블릿 패널은 수요 감소로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음.
- \* 징둥팡(BOE)의 65인치 대형 패널은 다수 TV 제조업체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며, 3월부터 G10.5 라인 생산품이 출하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수입제품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 (특이동향)

- 미 행정부, 중국에 미국 반도체 수입 확대 요청
  - 미국 행정부가 스티브 므누신 재정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명의로 류허 중국 부총리에 보낸 서한에 미국 반도체 구매량 증가 요청이 포함되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3.25일자로 보도
  - \* 전문가들은 미-중간 무역분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되면 중국의 한국산 중간재(반도체 등) 수입 수요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3월 동향)** 미국 내 고용과 소비 호조에 힘입어 완만한 경제성장세 지속되는 가운데, 3월 對미국 수출은 무선통신기기·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에도 수출비중이 높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수출 부진으로 △1.0%의 감소율을 기록
- **(품목별 동향)** 자동차·자동차부품·철강·가전 등의 수출이 감소, 일반기계·무선통신기기·반도체·컴퓨터·석유화학 등은 수출 증가
  - 자동차(24.3% ↓), 자동차부품(7.7% ↓) : SUV나 픽업트럭에 대한 수요는 높으나 승용차 판매는 부진하며, 글로벌 완성차의 북미 시장 판매부진 및 생산량 감소세로 한국산 자동차부품 수출 실적도 지속 하락

**현장 정보**

\* 북미 시장 내 경트럭(SUV·픽업트럭) 수요는 여전히 높은 반면 승용차 판매비중은 최저치를 보이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 전년도부터 Big3 및 글로벌 OEM의 세단 생산이 줄고 SUV·트럭 생산량이 증가함.  
 \* 한국산 자동차부품 수요는 부진하며 글로벌 부품사간 경쟁 심화 추세이나, 생산량 감소로 인한 부품업계의 수출 감소세가 우려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시각도 상존

- 무선통신기기(26.8% ↑) : 중국산 스마트폰 미국 출시계획 취소 및 한국산 신제품(갤럭시 9)에 대한 수요 증가로 수출 급증



### 현장 정보

- \* 2018년 3월 신규 발매한 Galaxy 9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좋은 편임. 특히 선주문에 대한 100달러 할인 행사에 소비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음. (Best Buy 관계자)
- . 전년 3월은 주요 제품들의 신제품 출시 전이라 수출이 저조했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임.
- \* 중국산 스마트폰에 대한 미국 보안 유출 위험을 우려한 미국 정부의 압박으로 지난 1월 AT&T와 버라이즌이 중국 화웨이 스마트폰의 출시를 취소한데 이어, 3월에는 화웨이의 주요 스마트폰 유통 파트너인 베스트바이도 판매중단에 동참키로 결정함.

- **일반기계(11.0% ↑)** : 농업·임업·건설 분야 기계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자동화 장비에 대한 수요 확대로 수출 증가

### 현장 정보

- \* 농업·건설·임업 기계 제조업체의 장비 판매는 2018년 1분기 24% 상승했으며 올해 전체로는 2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 다만 3월 22일 트럼프 정부의 철강 관세 부과 발표로 John Deere, Caterpillar 등 미국의 농기계 제조업체들은 부품 수입단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음.
- \* 4차 산업혁명의 영향력이 일반기계 산업구조에도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특히 산업 자동화 장비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맞춤형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 E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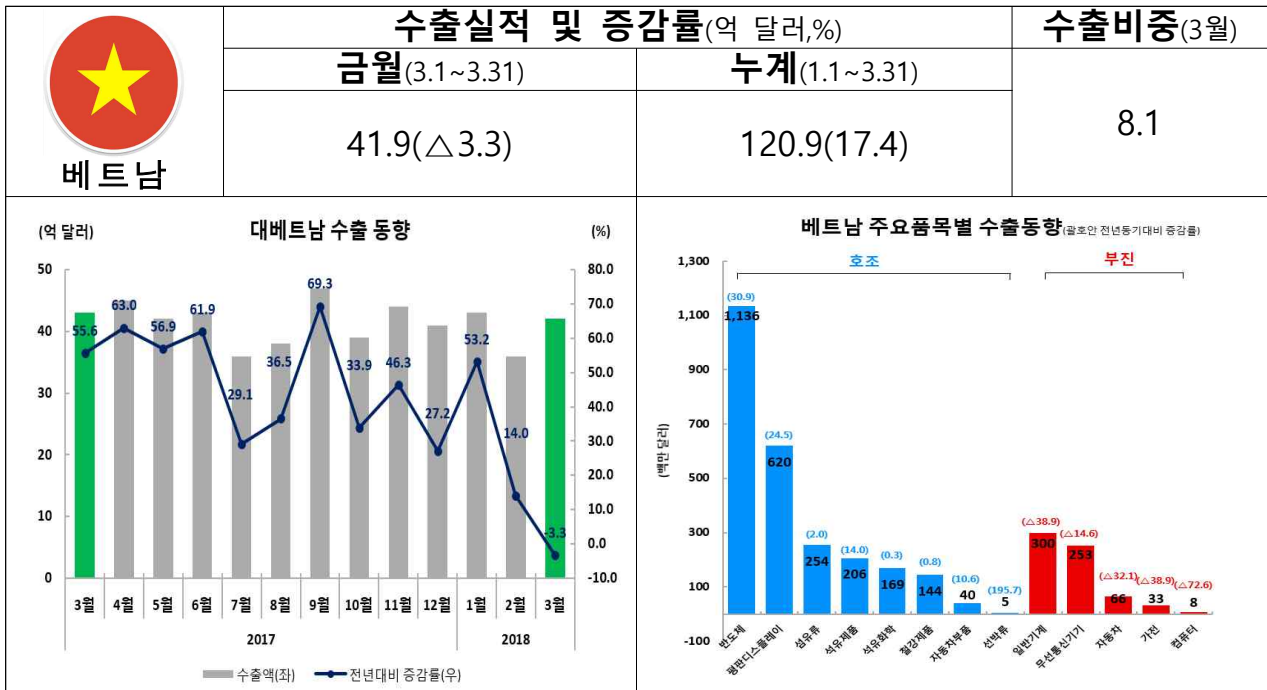
- **반도체(17.1% ↑)** : IT·반도체 경기 호조 및 고용량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 지속

### 현장 정보

- \* 메모리 가격의 안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량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고, 5G·사물인터넷·자율주행자동차 등 최종재의 응용 확대로 수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 한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낸드 플래시와 DRAM 부문은 스마트폰과 시스템 운영용 서버 수요에 의해 당분간 상승된 가격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 외 주문형 반도체, 비광학센서, 자동차 전장용 반도체 부문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됨.

## □ (특이동향)

- 미 상무부, 3.20일 한국산 강선재에 반덤핑 최종판정
  -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산 강선재(steel wire rod)에 덤핑혐의 긍정 최종판정 발표
  - ITC의 최종 산업피해 조사 결과(5.3일 발표 예정)에 따라 5.10일 반덤핑 관세 부과될 예정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3월 동향)** 베트남의 제조업 및 소비시장은 견고한 성장세 유지되고 있으나 최근 FDI금액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3월 對베트남 수출은 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 수출 호조에 불구하고 기저효과(17.3월 43.3억 달러, +55.6%), 휴대폰 현지 부품 조달 증가 등의 영향으로 '16.1월 이후 처음 감소율(△3.3%)로 전환
- **(품목별 동향)** 일반기계·무선통신기기·자동차·가전·컴퓨터의 수출이 감소, 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석유류·석유제품 등의 수출은 증가
  - **일반기계(38.9%↓)** : 중국, 대만 등 경쟁국 브랜드에 비해 가격경쟁력 약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 감소

**현장 정보**

- \* 많은 현지 바이어들은 한국산 기계의 약점으로 높은 가격을 꼽고 있음.
  - . 한국제품은 중상제품군에 속하는데 중국, 대만 등 다른 나라 브랜드에 비해 가격이 다소 높아 현지 바이어들이 구매를 꺼리는 경향이 있음. (기계·장비류 수입업체, Tan Phu사)
- \* 또한, 브랜드 인지도, 현지 에이전트 지원 정책 등이 부족해 실제 구매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음. (ANS Vietnam)

- **무선통신기기(14.6%↓)** : 휴대폰 부품의 현지 조달 증가로 수입 수요 감소세

### 현장 정보

- \* 對베트남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95% 이상이 관련 부품 중심이며, 현지에서의 부품 조달 증가가 對베트남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침.
- .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은 대기업들의 베트남 투자진출 이후 1,2차 부품협력사들도 베트남에 동반 진출함에 따라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현지 조달로 대체되면서 수출이 감소하는 추세 (부품협력사 imarket사)

- 반도체(30.9% ↑) :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의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갤럭시 S9)에 따른 메모리칩 수요 증가로 수출 호조

### 현장 정보

- \* 3.16일 갤럭시 S9 출시에 맞춰 스마트폰 핵심 부품인 반도체 수요가 증가함.
- . 특히 반도체는 베트남 현지에서 조달이 불가능하여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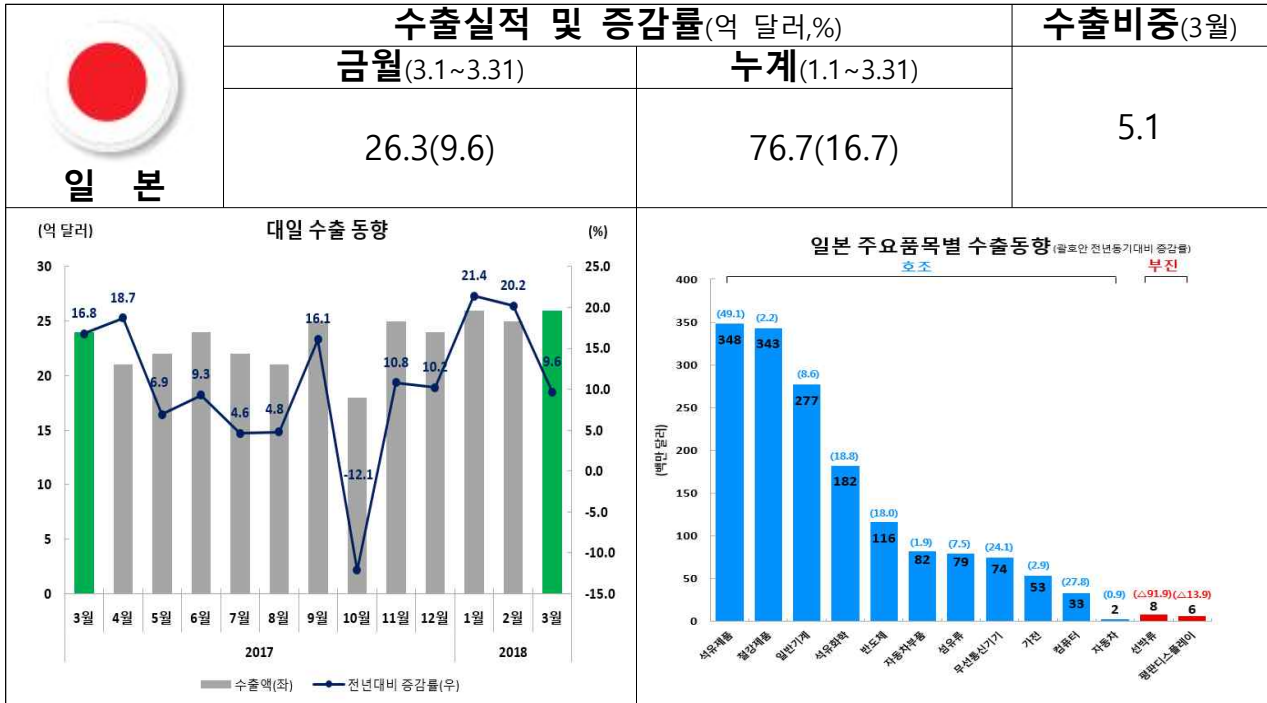
- 평판디스플레이(24.5% ↑) :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용 OLED 수요 증가로 수출 호조세 지속

### 현장 정보

- \* 스마트폰, 태블릿, 대형 TV 등 전자제품의 OLED 디스플레이 채택이 늘어나는 추세임.
- \* 특히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베트남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활발해져 한국의 對베트남 디스플레이 수출 증가에 기여하고 있음.
- . 한국에서 OLED/LCD 패널을 수입한 후, 현지 베트남 공장에서 조립·생산 과정을 마친 제품들을 고객사로 납품하고 있음.

## □ (특이동향)

- 베트남 산업무역부, DAP·MAP 비료에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
  - 3.2일에 DAP·MAP 비료에 대해 정식 세이프가드 발동을 공표하는 최종 판정문 발표(Decision 686/QD-BCI)
  - 3.7일부로 비료(8단위 HS Code 기준 8개 품목)에 톤당 50달러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2020년 3월 6일까지(2년간) 부과 예정
  - \* 베트남 비료산업은 SA 비료나 칼륨 비료 등 일부 품목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Urea 비료나 인산 비료는 자체 수급 가능할 정도로 발전, 베트남 내 비료 생산 업체706개사 총 생산량이 2,850만톤으로 1,000만톤으로 추산되는 연간 수요량의 약 세배에 달하는 수준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3월 동향)** 기업 설비투자 증가, 고용·소득·물가 안정 등 일본의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3월 對일본 수출은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의 호조에 힘입어 9.6% 증가하여 5개월 연속 수출 증가율을 달성

□ **(품목별 동향)** 석유제품·철강·일반기계·석유화학·반도체·무선통신기기 등 11개 품목의 수출 증가, 선박류·평판디스플레이는 수출 부진

○ **석유제품(49.1% ↑)** :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수출단가 상승 및 일본 정유 업계 재편에 따른 감소 영향으로 수입수요 증가하여 수출 호조

**현장 정보**

- \* 원유가격 상승으로 석유제품의 수출단가 상승
  - . WTI의 경우, '17.3월에는 47달러 수준에도 거래됐으나 최근 65달러 이상으로 가격 상승
  - . OPEC과 러시아가 2017년부터 원유생산 줄이고 있으며 2018년 말까지 감산정책 유지하기로 합의
- \* 일본 석유산업 재편 효과로 수급 균형이 개선되면서 업계 채산성이 향상되고 있는 단계이며, 생산설비 감축으로 공급 줄어든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수요는 지속될 전망

○ **일반기계(8.6% ↑)** : 운반하역기계, 가열난방기, 원동기 등에 대한 수요 확대로 수출 증가

### 현장 정보

- \* 원동기(25.9%), 운반하역기계(107.7%), 가열난방기(109.0%) 등의 상승세로 인해 對일 전체 일반기계 수출이 증가
- \* 일본의 1월 기계 수주 통계에 따르면 민간설비 수요가 전월비 8.2% 증가 (내각부, 3.14)
- \* 다만 보일러 등 발전용 원동기의 경우 석탄화력 발전의 수요 감소로 2018년 전체적으로는 19.7% 감소할 전망 (일본전기공업회, 3.15)

- 석유화학제품(18.8% ↑) : 폴리프로필렌을 중심으로 일본내 수입 수요 증가세 지속돼 수출 확대

### 현장 정보

- \* 일본내에서는 폴리프로필렌 주요 생산업체의 설비 축소로 국내생산량이 10년동안 20% 감소했으나, 자동차 생산 공장의 일본 U턴, 경기 회복세 등으로 수요는 증가 (후타무라 화학)
- \* 한국공장에서의 對일 폴리프로필렌 수출은 '17.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18.1월에는 전년 동월비 3배 이상 수출 증가, 2019년 베트남에 연간 60만톤 생산 가능한 폴리프로필렌 공장 설립 예정인데 일본의 생활잡화·식품포장필름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문의도 많은 상황 (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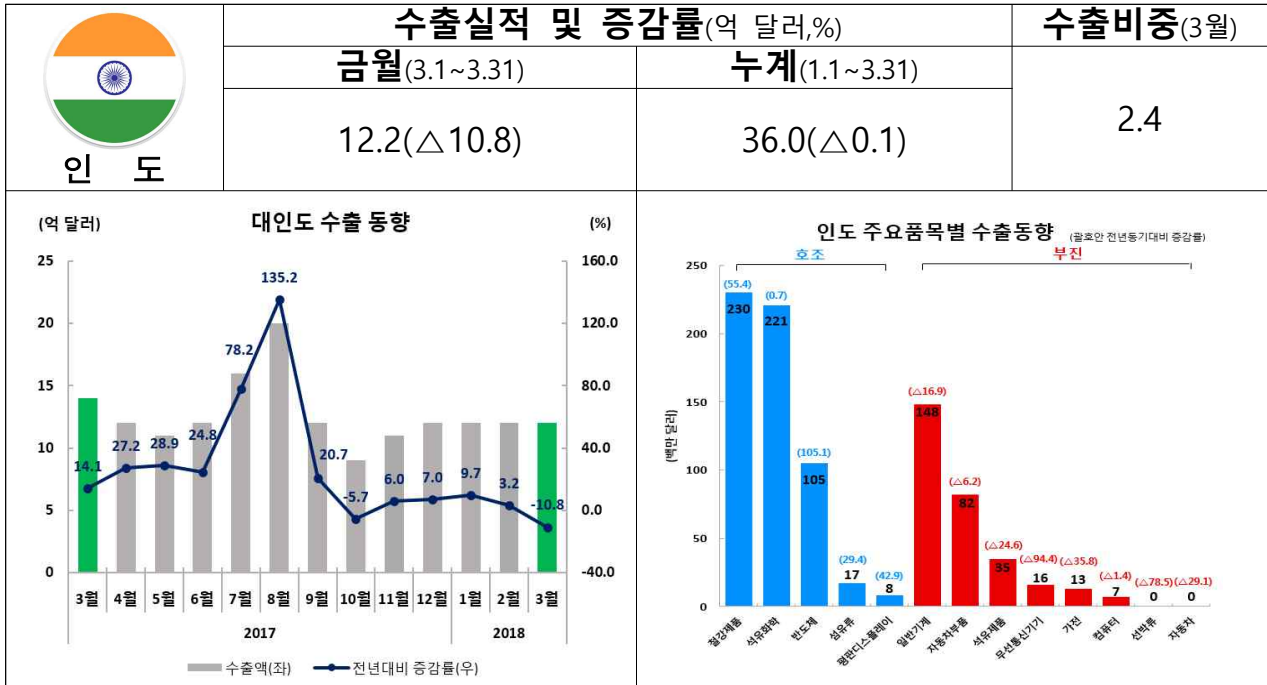
- 평판디스플레이(13.9% ↓) : TV 판매 부진에 따른 재고 과잉 및 LCD 패널 가격 하락으로 수출 감소

### 현장 정보

- \* 2017년 TV판매 부진 영향으로 재고가 과잉되어 TV에 사용되는 LCD 패널 가격이 지속 하락 추세 . 2월 기준 32인치는 전월 대비 1.5% 하락, 55인치는 0.6% 하락, 40~50인치는 3~4% 하락했으며, 4~6월에는 낙폭이 축소될 전망 (일본경제신문)

## □ (특이동향)

- 일본 정부, 한국과 중국산 탄소강제 배관용 부품에 반덤핑 조치 최종 확정(3.23)
  - 외국인산 철강제품에 대한 일본 최초의 반덤핑 조치 발동 건으로, 3.31일부터 5년간 41.8~69.2%의 반덤핑 관세 부과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3월 동향)** 인도는 각종 경제개혁의 부작용을 딛고 산업생산 확장 및 소비자 물가 안정 등 견고한 경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3월 對인도 수출은 기본 관세 인상된 무선통신기기가·가전 등의 수출 부진으로 △10.8% 감소하여 5개월 만에 감소율로 전환

□ **(품목별 동향)** 일반기계·자동차부품·석유제품·무선통신기기가·가전 등의 수출이 부진, 철강·석유화학·반도체·섬유류 등은 수출 증가

○ **일반기계(16.9% ↓)** : 건설장비 산업은 확장세이나 인프라 프로젝트 관련 기계류의 수입 수요가 감소하여 수출 부진

**현장 정보**

\* 건설장비 산업은 2017-18 회계연도 전년대비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18.2월 인도 내 수송기계 출하량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인도 정부 예산안이 농촌 진흥에 맞추어져 있는데, 농가소득 증대는 중장기적으로 수송용 기계에 대한 수요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현지 기계수입상, Solitaire Machine Tools)

○ **무선통신기기(94.4% ↓)** : 2월부터 통신기기 완제품과 부품에 대한 기본관세 인상 및 사회보장제 신설 조치 시행으로 2개월 연속 수출 대폭 감소

### 현장 정보

- \* 2017년 상반기까지 對인도 수출증가를 이끌었던 무선통신기기의 수출액이 2017년 7월 기본관세 인상 이후 급감했으며, 2018년 들어서도 수출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임.
- . 2017년 상반기 대인도 개별 수출품목으로 수위를 유지했던 무선통신기기의 수출이 대폭 감소하면서 대인도 수출증가 모멘텀이 약화된 상황
- \* 특히,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샤오미가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음. 양사는 인도 스마트폰 시장의 50% 가량을 점유하고 있으며 기타 비보, 오포, 레노보와 같은 중국산 스마트폰이 나머지 시장을 장악하고 있음. 최근 15,000루피 이하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산 스마트폰의 공세에 밀려 삼성전자의 시장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 **가전제품(35.8% ↓)** : 전기전자 품목에 대한 세율 인상 및 인도 정부의 현지생산 독려로 수입 수요 감소

### 현장 정보

- \* 냉장고,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은 주로 인도 업체 및 인도내 외국 회사에서 제조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대형 가전제품의 수입 비율은 낮고 일부 부품이 수입되어 인도에서 조립되고 있음.
- . 2017년 7월 도입된 통합간접세 제도로 가정용전자제품에 28%의 세금이 적용된 상태
- \* 인도 자체 브랜드인 Intex는 인도 북부 그레이터 노이다 Kasna지역에 신규 제조시설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Intex를 비롯한 인도 국내 제조사들은 비용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18.2월에 실시된 기본관세 인상조치를 환영하고 있음. (현지 전기전자 기업, Intex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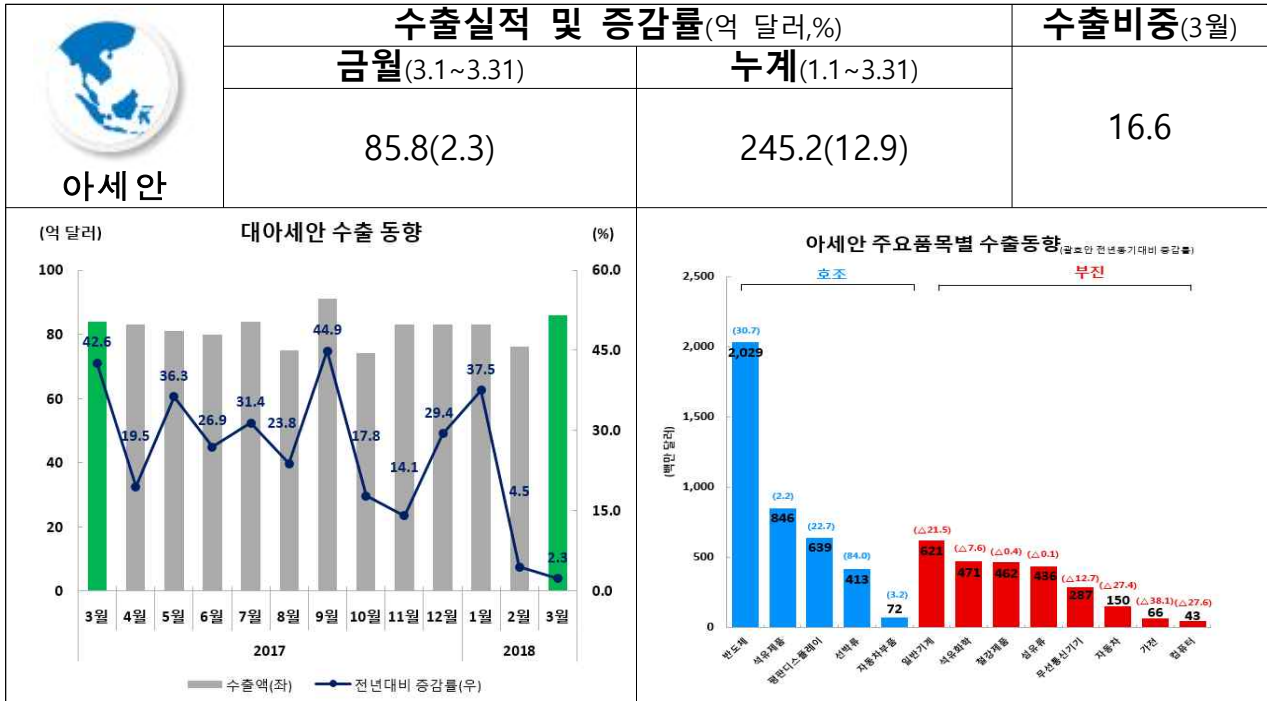
- **반도체(105.1% ↑)** : 기존에 반제품, 모듈 형태로 수출되던 휴대폰 관련제품이 관세품목 변경을 통해 부품 형태로 수출되면서 수출 급증

### 현장 정보

- \* 무선통신기기에 대한 관세가 상향되면서 기존 반제품, 모듈 형태로 수입되던 휴대폰 관련 반도체 제품이 품목변경을 통해 부품의 형태로 유입되면서 수출량이 급증함.
- \* 인도 반도체 부품시장이 2025년까지 323억 달러 규모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함. 이는 2018-2025년 기간 동안 연평균 10.1% 성장하는 수치이며, 주요 수요처로는 공장자동화, 방산, 농촌지역 통신망 연결 분야를 꼽을 수 있음. (인도 전기전자반도체협회, IESA)

## □ (특이동향)

- 인도 중앙은행, Nirav Modi사의 은행대출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인도 주요 은행의 LoU(Letter of Understanding) 발급을 금지(3.13)
  - \* 신용장 거래 수수료가 인상되면서 인도 수입업체들(특히 중소기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 對인도 수출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 있을 것으로 예상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3월 동향)** 역내 무역투자 활성화 및 제조업 호황 등으로 견고한 경제성장세 유지되는 가운데, 3월 對아세안 수출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로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2.3%의 증가율을 달성
- **(품목별 동향)** 반도체·석유제품·평판디스플레이·선박류 등의 수출은 증가, 일반기계·석유화학·무선통신기기·자동차 등은 수출 감소
  - **반도체(30.7% ↑)** : 현지 스마트폰 생산 확대에 따른 메모리칩 수요 증가 및 태블릿 등 반도체 사용 제품 생산 확대로 수출 증가세 지속

**현장 정보**

- \* 3.1~20 기준 對아세안 반도체 수출금액(11.1억불)의 50% 이상이 對베트남 수출금액(5.6억불)
- \* **(인도네시아)** 반도체를 부품으로 하는 완제품의 수출 감소 및 현지 생산 확대로 반도체의 對인니 수출이 증가함. 2017년 하반기 이후 부품수입 및 현지 조립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 **(필리핀)**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제품 수요 증가에 따른 반도체 수요 동반 상승에 기인

- **석유제품(2.2% ↑)** : 유가 상승 및 현지 석유 수요 증가로 인해 수출 증가



### 현장 정보

- \* **(말레이시아)** 뽕어랑 석유화학단지가 '19년 1분기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임에 따라 석유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세
-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국영석유기업인 빠르따미나(Pertamina)의 대형 정유 공장(refinery)를 30~45일간 단기 정비를 수행하면서 자체적인 정유 생산이 어려워 SK에너지, GS칼텍스 등 한국의 주요 정유 생산 기업으로부터의 정유 수입이 일시적으로 증가
- \* **(필리핀)** 현지 생산량 증가로 석유제품에 대한 수입수요가 영향을 받고 있으나 지난 2월 한국산 수입 감소가 소폭 회복된 것으로 판단

- **선박류(84.0% ↑) : 對인니 선박 수출 실적 호조가 對아세안 수출 증가를 견인**

### 현장 정보

- \* **(인도네시아)** 3월 한국 對아세안 선박류 수출금액 중 對인니 수출 비중이 96%를 차지. 2011년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 정부와 잠수함 2척은 국내조선소에서 건조하고 1척은 선박블록을 국내에서 만들어 인도네시아 국영조선소인 PT.PAL에서 조립하기로 계약을 맺었음.
- . 1번함은 작년 8월에 인도됐으며, 2번함의 경우 인도시점이 기존 '18.1월에서 지연돼 '18.4월로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3번함은 현재 인도네시아로 들여와 조립 중인 상태임. 3월 對인니 수출금액인 3.4억불은 군함 수출잔금과 거의 일치하는 규모로 추정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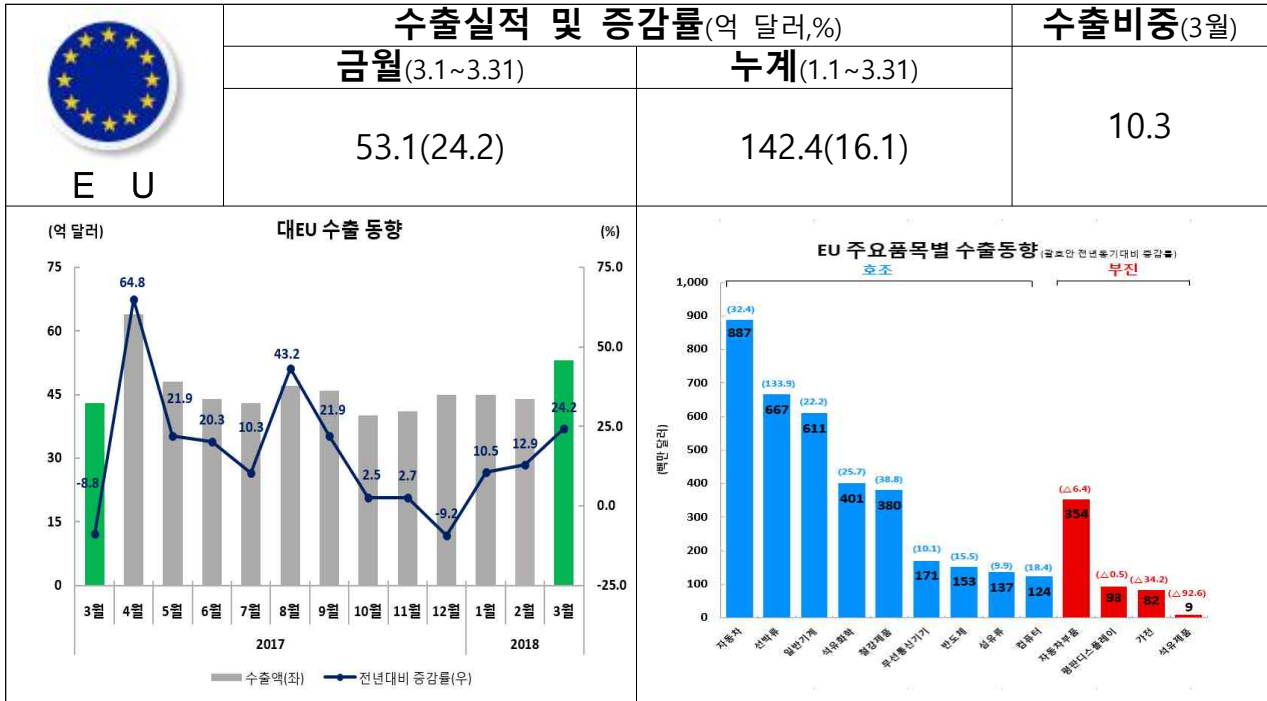
- **석유화학제품(7.6% ↓) : 원재료 단가 상승 및 현지 조달 비중 증대로 수출 감소**

### 현장 정보

- \* **(말레이시아)** 석유화학제품 시장이 당분간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18년 1분기 對말레이시아 폴리올레핀 제품 인도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롯데 케미칼 타이탄)
- \* **(인도네시아)** 자동차 생산량이 감소하면 타이어 수요도 감소하여 타이어 생산용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또한 고밀도폴리에틸렌(HDPE)의 원재료인 에틸렌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부 석유화학 업체가 공장 가동률을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HDPE의 對인니 수출실적도 전년 동기대비 감소함.

## □ (특이동향)

- 인니 정부, 대통령령으로 에너지 개발 등 주력산업 6개 지정(3.25)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2019년 국가 산업정책에 관한 대통령령 '2018년 제2호'를 제정, 6개 산업(식품,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섬유·피혁·신발, 운송장비, 전자계산 장비, 에너지 개발)을 주력 산업으로 지정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3월 동향)** 고용 증가 및 내수·수출 호조로 견고한 경기 회복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3월 對EU 수출은 고가의 선박 수출 및 자동차·일반기계·철강 제품 등의 수출 호조로 24.2% 증가하여 3개월 연속 두 자리 수 증가율을 달성
- **(품목별 동향)** 자동차·선박류·일반기계·석유화학·철강·반도체 등 9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 자동차부품·평판디스플레이·가전·석유제품의 수출은 감소
  - 자동차(32.4% ↑) : 경기 호조에 대한 기대심리로 신차 구매 수요가 늘어나 수출 증가

**현장 정보**

- \* **(오스트리아)** 경기 호조에 대한 기대로 소비 심리 개선됨에 따라 신차 구매 수요가 증대되어 전체적으로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음. (기아자동차 오스트리아 법인)
- \* **(그리스)** '17년 3월 현대-기아차 딜러십을 인수한 Derasco 사의 공격적인 프로모션 및 신모델인 '니로'와 '스토닉'의 선전으로, 이전에 1%까지 내려갔던 현대-기아차 점유율이 '18.2월 기준 8.2%까지 회복됐으며, 그리스 경기 회복에 따라 올해 지속적으로 수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기아자동차 공식 딜러 KIA Motors Hellas)
- \* **(스웨덴)** '18.7월 도입 예정인 저탄소배출차량지원제도로 인해 앞으로 전기차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낮은 친환경차량의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기아자동차 북구법인)

- **선박류(133.9% ↑)** : 유럽 조선·해양산업 회복 및 친환경·고효율 선박 부품에 대한 수요 확대로 수출 증가

#### 현장 정보

- \* 지난 몇 년간 유럽 조선·해양산업 침체가 지속되었으나, 금년부터 차츰 회복세 진입 중
- \* 친환경·고효율 선박 건조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한국산 해당 선박 수주 및 관련 부품 수요 증가 (독일 선주사 V사)

- **철강제품(38.8% ↑)** : 경쟁국 대비 우수한 품질 및 중국산에 대한 EU의 반덤핑 조치에 따른 반사이익 효과로 수출 증가

#### 현장 정보

- \* **(독일)** 대형 장기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신뢰성 높은 한국제품을 선호하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도 높아 지속적으로 한국제품을 수입할 예정임. (독일 에너지 관련 L사) / 한국 철강제품은 독일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아 지속적으로 거래할 예정임. (독일 철강제품 제조개발 H사)
- \* **(스페인)** 건설경기 회복됨에 따라 철강제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난 것으로 보임. 아울러 중국산 내식강 제품에 EU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산이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추측됨. (철강 수입기업 C사)
- \* **(스웨덴)** 슬라 패널에 사용되는 스테인레스 스틸 코일 수입 국가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변경했는데, 공급선 변경 이유는 한국산 제품이 중국산 대비 품질관리가 우수하기 때문임. (바이어 M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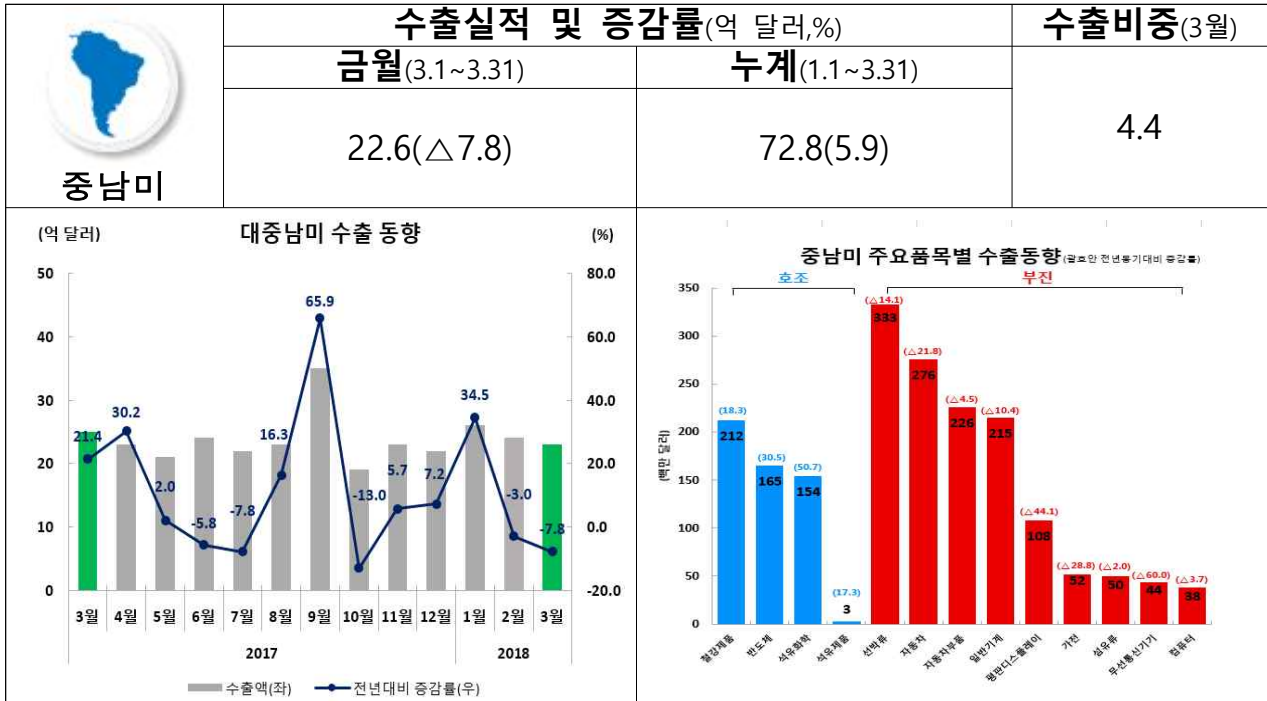
- **자동차부품(6.4% ↓)** : 물류비 절감을 위한 현지 부품 조달 증가로 수입 수요 감소

#### 현장 정보

- \* **(불가리아)** 한국에서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는 것 보다 불가리아 시장에 필요한 자동차 부품은 유럽에 생산 공장이 있는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을 통해 수입하고 있음. (자동차부품 바이어 D사)
- \* **(독일)** 유럽 내 자동차 생산 시 유럽연합 내 현지 조달을 선호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 독일 자동차 제조사, 중국 소재 자사 자동차 생산 기지를 통해 한국산 부품을 수입하는 경향있음. (자동차부품 업체 Z사)

## □ (특이동향)

- **프랑스 전력회사(EDF), 대규모 ESS(에너지저장시스템) 투자계획 발표(3.27)**
  - \* '17.12월 2035년까지 프랑스에 30GW 규모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구축해 원자력 의존도를 대폭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 EDF는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유럽의 리더가 되는 것이 목표”라며 2035년까지 10GW의 ESS 추가 설치 계획을 발표
  - \* 2017년 기준 동사의 전 세계 ESS시설(5GW)의 2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신규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투자금액은 80억 유로(약 10.7조원)에 달함.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3월 동향)** 중남미 지역은 제조업 경기 회복 및 물가 안정에 따른 내수 확대, 대외교역 호조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 지속되고 있으나, 3월 對중남미 수출은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 생산 증가 및 NAFTA 재협상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일반기계·자동차 등의 수출이 감소하여 △7.8%의 감소율을 기록

□ **(품목별 동향)** 선박류·자동차·자동차부품·일반기계·평판디스플레이 등 9개 품목의 수출이 부진, 철강·반도체·석유화학·석유제품은 수출 증가

○ **자동차(21.8% ↓)** : 현지 생산공장 내 완성차 생산 비중이 증가하면서 수입 수요 감소하여 수출 감소세 지속

**현장 정보**

- \* **(멕시코)** 현대·기아자동차의 멕시코 내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 추세이나, 현지 생산 공장 내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증가하고 있어 한국산 직접 수출액은 감소  
 . '18년 1-2월 현대·기아자동차의 멕시코 내 판매량은 전년 대비 각각 19.0%, 27.4% 증가한 7,812, 12,198대를 기록 (멕시코 자동차협회, AMIA)
- \* **(브라질)** 카니발 연휴로 판매량이 감소했으나, 수입차에 30%의 공업세(IPI)를 부과하는 '이노바르-아우토(Invar-Auto)' 프로그램이 '17년 말 폐지됨에 따라 수입차 가격경쟁력이 상승하여 향후 한국산 자동차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  
 . '18년 2월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13.6% 감소한 138,510대 기록 (브라질 자동차산업협회)

- **일반기계(10.4% ↓)** : 브라질 카니발 연휴로 인한 조업 일수 감소 및 NAFTA 불확실성에 따른 설비투자 유보 영향으로 수출 감소

#### 현장 정보

- \* **(멕시코)** NAFTA 재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기간이 길어지며 설비에 대한 투자를 유보함에 따라 일반기계의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
- \* **(아르헨티나)** 기계류의 경우 가격경쟁력이 있는 중국산 제품의 수요가 많음.
- \* **(브라질)** 카니발 등의 연휴로 인한 근무 일수 축소로 인해 수입 수요 감소  
 . 산업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기계장비 전반에 대한 수리·보수·교체가 이루어지고, 기계장비 구매시 저리 금융이 제공됨에 따라 '18년 전체 기계장비 시장은 전년 대비 5-8% 증가할 것으로 전망 (브라질 기계산업협회, ABIMAQ)

- **평판디스플레이(44.1% ↓)** : 완제품 수입 증가로 부분품인 평판디스플레이 수요 감소 및 LCD 패널의 단가 하락으로 한국산 제품의 수출액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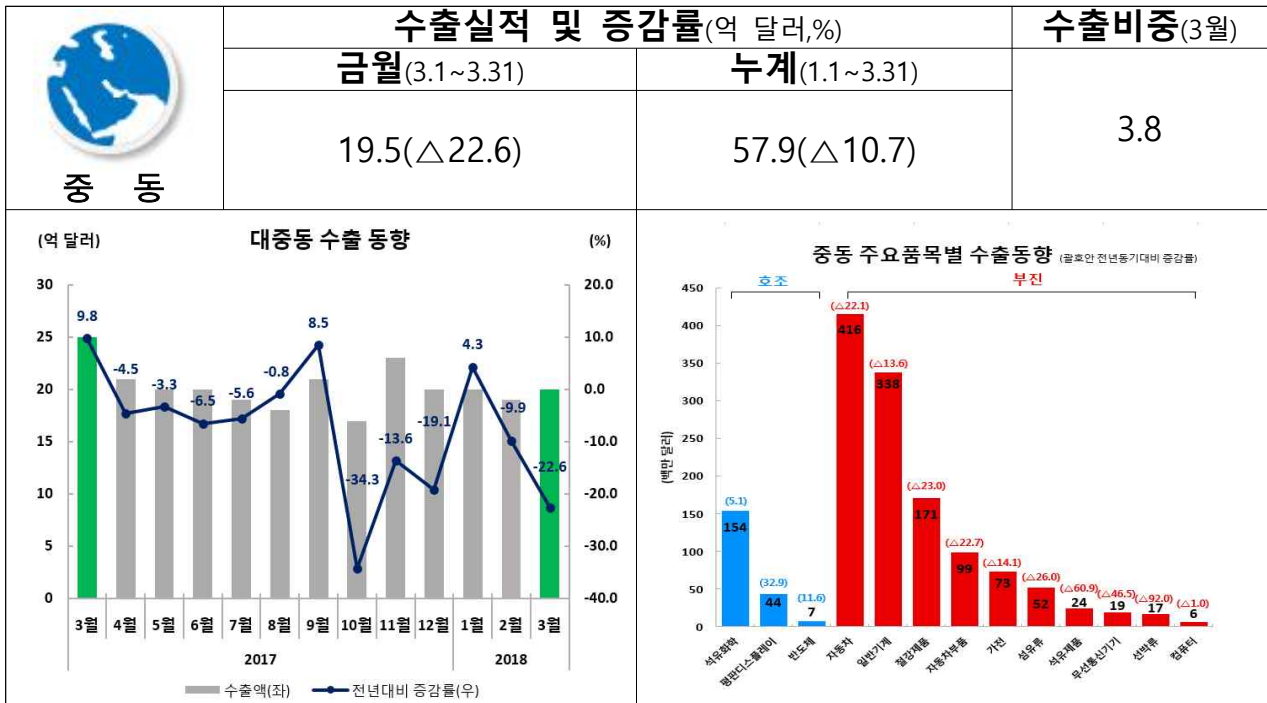
#### 현장 정보

- \* **(멕시코)** LCD 패널 단가 하락 및 휴대전화 시장 정체로 모바일용 OLED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수출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
- \* **(아르헨티나)** 전자제품 수입규제 폐지(관세율 35%→0%)로 다수의 현지 조립 공장이 조업을 중단하여 평판디스플레이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며, 완제품 수입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평판디스플레이와 같은 부분품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철강제품(18.3% ↑)** : 중남미 주요국의 산업 생산 회복 및 건설 경기 호황으로 철강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 현장 정보

- \* **(브라질)** 2018년 본격적인 산업 생산 회복으로 철강제품의 수입 증가  
 . '18년 브라질의 평강 판매는 전년 대비 4-5% 증가하며 4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 (브라질 철강유통협회, Inda)
- \* **(멕시코)** 자동차 생산이 증가하면서 고품질 한국산 철강에 대한 수요 증가  
 . '18년 1-2월 멕시코 자동차 생산량은 632,107대로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
- \* **(파나마)** '19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및 동시다발적 프로젝트 추진으로 철강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 호황에 따른 건설 관련 철강 제품에 대한 수요도 지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
- \* **(콜롬비아)** 조세개혁 및 브라질 Odebrecht사의 부실공사 사건 등으로 지연되었던 건설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관련 품목인 철강제품의 수요가 '18년에는 전년 대비 7-10% 증가할 것으로 전망 (ARMETRALES사)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3월 동향)** UAE 'In-Country Value' 논의로 역내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 환율 시장 불안정 등의 리스크가 상존하는 가운데, 3월 對중동 수출은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일반기계·철강의 수출 부진으로 △22.6%의 두 자리 수 감소율을 기록

□ **(품목별 동향)** 자동차·일반기계·철강·자동차부품·가전·섬유류 등 10개 품목의 수출이 부진, 석유화학·평판디스플레이·반도체 수출은 증가

○ **자동차부품(22.7% ↓)** : 주 소비층인 외국인 비중 감소(사우디), 중국·인도산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수출 감소

**현장 정보**

\* **(사우디)** 사우디 전체인구 중 3분의 1이 제3국 외국인 근로자인 것을 감안했을 때, 외국인 부양가족세 등으로 인한 외국인 비중감소로 수요도 따라서 감소한 것으로 분석

\* **(이란)**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 및 인도산 제품 수입 증대로 한국산 제품 수입 감소. 리알의 對미달러 환율 변동폭 커짐에 따라 수입상의 구매력 감소, 대금 결제시스템 서비스 애로 증대

○ **가전(14.1% ↓)** : 가계의 가처분 소득 감소(사우디), 저가 중국산 제품 유입 확대로 수출 감소

**현장 정보**

- \* (사우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사우디 자국민들의 소비가 줄고 대부분의 시장은 중국산 저가제품 대량 유입으로 한국산 제품이 가격경쟁력에서 밀리는 추세
- \* (UAE) 로컬 브랜드에서 중국 OEM공장 모델 공급으로 인해 우리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18.3월 기준 전년동기비 1.4% 감소)

- 철강제품(23.0% ↓) : Oil & Gas 프로젝트 관련 강관 수요 부진으로 수출 감소

**현장 정보**

- \* (사우디) 철강제품은 프로젝트(특히 Oil & Gas 프로젝트)에 따라 물량 영향을 많이 받는데, 프로젝트 일정에 따른 대량 납기나 선적 일정에 따라 수출 통계가 변하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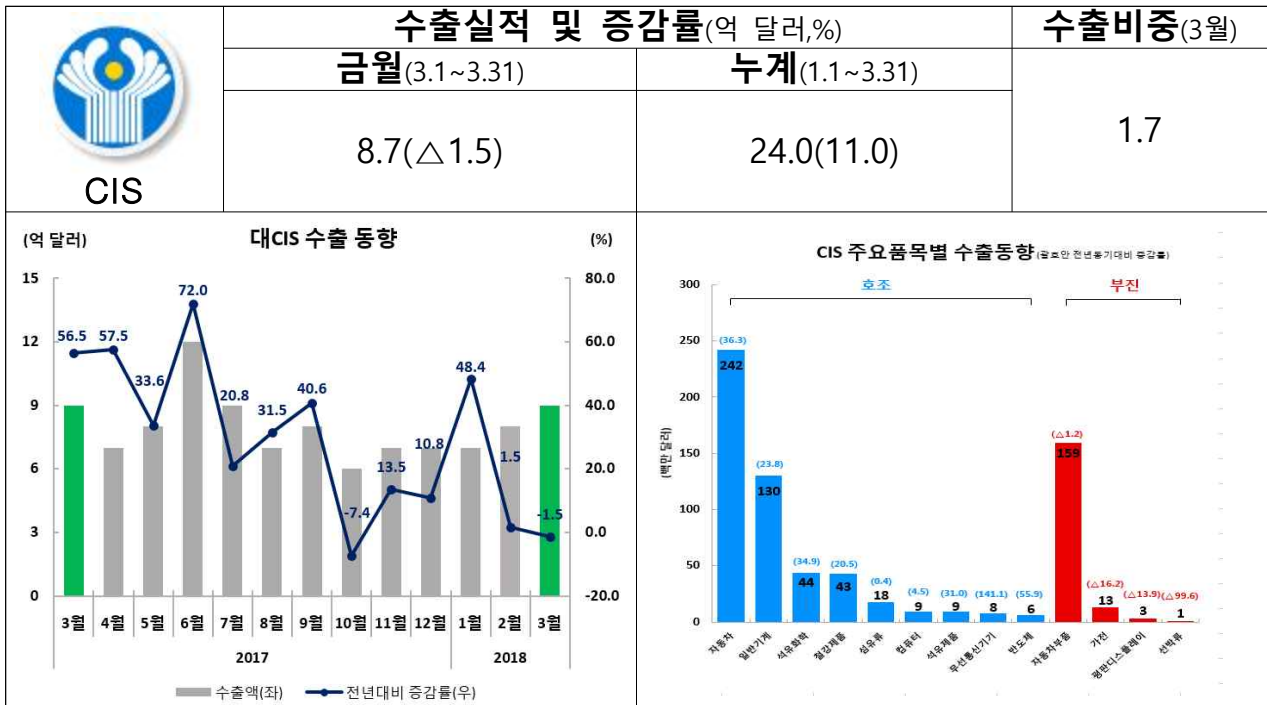
- 평판디스플레이(32.9% ↑) : 이란·사우디를 중심으로 상업용 및 가정용 수요 증가

**현장 정보**

- \* (사우디) 상업용 및 가정용 수요 증가로 매우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수출 금액 면에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움.
- . '18.3월 對사우디 평판디스플레이 수출 증가율은 12,354%에 달했으나, 수출 금액은 26만 달러로 미미

**□ (특이동향)**

- 알제리,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안' 통과로 전자상거래 시장 첫발 내딛어
  - 2월 말, 알제리 하원에서 알제리 내 전자상거래 전반에 관한 기본 틀을 규정 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안'을 과반수로 채택
  - 낮은 인터넷 보급률 및 인프라 수준, 제한된 지불수단 등이 전자상거래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이번 법안으로 전반적인 기틀이 마련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는 물론 관련 산업(온라인 지불 가능한 결제 플랫폼 및 솔루션, 배송 및 물류 시스템 구축 등)의 발전도 기대되는 상황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3월 동향)** 제조업 육성정책 및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3월 對CIS 수출은 자동차부품·선박류 등의 수출 하락으로 △1.5% 감소하여 5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
- **(품목별 동향)** 자동차부품·가전·평판디스플레이·선박류는 수출 부진, 자동차 일반기계·석유화학·철강·섬유류 등의 수출은 증가
  - **자동차부품(1.2% ↓)** : 재고 물량 증가 등으로 한국산 자동차 부품 수입 일시적 감소

**현장 정보**

- \* **(러시아)** '17년도 자동차 수입이 전년대비 63.6% 증가, '18년 2월 누계치도 전년동기 대비 9.9%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3월의 자동차부품 수입 감소는 일시적 정체 현상으로 파악됨. (상트페테르부르크 무역관)
- \* **(우크라이나)** 현대·기아 자동차 수입이 줄면서 한국 자동차 부품 수입도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 (바이어 A사)
- \* **(아제르바이잔)** 재고물량의 적체로 한국산 자동차부품 수입 감소 (Shuttgard Auto)

- **가전(16.2% ↓)** :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 확대, CIS 역내 및 타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 한국산 수출 감소세 지속



### 현장 정보

- \* (러시아) 중국 화웨이 등 중국 가전제품의 선전과 CIS 역내 생산 가전 수입으로 한국산 가정용전자제품 수입은 부진 지속
- \* (몽골) 삼성, LG의 브랜드 파워는 지속되고 있으나 주로 러시아, 중국, 동남아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수입됨.

- 자동차(36.3% ↑) : 러시아를 중심으로 자동차 판매량 증가 및 한국산 인기 상승으로 수출 증가

### 현장 정보

- \* (러시아) '18.2월 기준 러시아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24.7% 증가, 기아자동차의 경우 44%, 현대자동차의 경우 43% 증가 (AEB)
- \* (카자흐스탄) '18년 1월부터 자동차 폐차지원 국가프로그램 가동, 자동차 구매시 할인/할부 적용함에 따라 수입수요 증가세
- \* (우즈베키스탄) 현대·기아 수출은 지속 부진하나 GM의 신형 캡티바, 말리부의 인기 상승 (현지진출기업 E사 P사)

- 석유화학제품(34.9% ↑) : 석유화학제품 생산능력이 저조한 CIS지역 특성상 내수 대비 공급 부족으로 한국산 수출 증가세 지속

### 현장 정보

- \* (러시아) 경제개발 2030 정책에 따라 석유화학 클러스터 건설이 활발하나 아직 내수 대비 공급 부족한 편이어서 '20년까지는 석유화학제품 수입이 지속될 전망 (러시아 경제부)
- \* (우즈베키스탄) 가전제품, 식품포장용기, 일회용품 등의 생산 증가에 따른 폴리스티렌 수입 증가 및 차량 내외장재 ABS 수입 증가세 (P 바이어, 자동차부품 U사)
- \* (우크라이나) 전통적으로 플라스틱 사출 원자재인 폴리프로필렌 수입이 많았으며, 경기회복세에 따라 수입수요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보임. (키예프무역관)

## □ (특이동향)

- 아제르바이잔 '하가지불' 산업 지구내 자동차 제조공장 신설 예정
  - AIC(Azerbaijan Investment Company)의 나자프 상무이사, '하가지불' 산업 지구내 자동차 제조공장이 신설될 예정이며 외국 투자자들과 협상 진행중이라고 언급
  - 한편, '네프트찰라' 산업 지구내 아제르바이잔이란 최초의 합작 자동차 제조공장은 3월에 완공돼 생산을 개시했으며, 연간 생산 차량 대수는 약 1만대로 예정

**참고 1**

**'18.3월 지역별 13대 품목 수출실적** (3.1~3.31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전년동기대비 %)

품목명		반도체	석유 화학	석유 제품	선박류	컴퓨터	일반 기계	자동차	철강 제품	자동차 부품	평판 디스 플레이	무선 통신 기기	섬유류	가전
국가명														
중국	당월 (증감률)	4,396 (65.0)	1,682 (△10.0)	670 (28.4)	37 (△63.3)	307 (83.9)	1,233 (26.0)	4 (△64.3)	355 (△14.8)	255 (△34.8)	971 (△30.2)	319 (△25.3)	165 (△3.5)	48 (△42.3)
	누계 (증감률)	12,420 (65.8)	5,301 (△3.1)	2,176 (40.4)	99 (△51.6)	857 (71.2)	3,221 (17.2)	11 (△17.1)	1,027 (△13.3)	696 (△39.3)	2,790 (△35.0)	1,192 (△15.3)	438 (△4.8)	138 (△33.2)
미국	당월 (증감률)	308 (17.1)	196 (1.4)	148 (△48.5)	3 (146.8)	302 (93.6)	734 (11.0)	1,198 (△24.3)	284 (△4.2)	516 (△7.7)	9 (△4.1)	701 (26.8)	121 (3.7)	174 (△12.5)
	누계 (증감률)	830 (18.9)	605 (19.0)	396 (△53.3)	39 (889.0)	727 (58.4)	1,999 (15.1)	3,074 (△23.5)	932 (17.3)	1,366 (△11.8)	28 (1.6)	1,342 (2.7)	319 (3.6)	470 (△9.8)
베트남	당월 (증감률)	1,136 (30.9)	169 (0.3)	206 (14.0)	5 (195.7)	8 (△72.6)	300 (△38.9)	66 (△32.1)	144 (0.8)	40 (10.6)	620 (24.5)	253 (△14.6)	254 (2.0)	33 (△38.9)
	누계 (증감률)	3,200 (65.4)	500 (8.3)	675 (31.2)	13 (7.2)	23 (△71.9)	900 (△17.7)	175 (△31.0)	437 (12.4)	109 (0)	1,795 (60.9)	731 (△5.2)	681 (7.2)	97 (△29.8)
일본	당월 (증감률)	116 (18.0)	182 (18.8)	348 (49.1)	8 (△91.9)	33 (27.8)	277 (8.6)	2 (0.9)	343 (2.2)	82 (1.9)	6 (△13.9)	74 (24.1)	79 (7.5)	53 (2.9)
	누계 (증감률)	297 (2.3)	491 (23.3)	1,291 (70.7)	29 (△79.2)	81 (9.5)	769 (11.8)	8 (12.1)	1,027 (8.7)	230 (△2.1)	17 (△35.7)	202 (17.4)	207 (6.8)	153 (13.0)
인도	당월 (증감률)	105 (105.1)	221 (0.7)	35 (△24.6)	0 (△78.5)	7 (△1.4)	148 (△16.9)	0 (△29.1)	230 (55.4)	82 (△6.2)	8 (42.9)	16 (△94.4)	17 (29.4)	13 (△35.8)
	누계 (증감률)	256 (57.7)	694 (17.4)	141 (22.8)	0 (△62.0)	19 (7.4)	441 (△10.6)	2 (47.0)	638 (37.6)	238 (3.4)	21 (6.8)	131 (△79.4)	47 (27.7)	42 (△28.6)
아세안	당월 (증감률)	2,029 (30.7)	471 (△7.6)	846 (2.2)	413 (84.0)	43 (△27.6)	621 (△21.5)	150 (△27.4)	462 (△0.4)	72 (3.2)	639 (22.7)	287 (△12.7)	436 (△0.1)	66 (△38.1)
	누계 (증감률)	5,748 (51.2)	1,387 (△0.8)	2,614 (7.8)	1,023 (149.2)	108 (△36.4)	1,767 (△6.7)	393 (△23.4)	1,423 (△23.5)	204 (△0.7)	1,850 (56.7)	818 (△4.7)	1,203 (4.1)	182 (△33.8)
EU	당월 (증감률)	153 (15.5)	401 (25.7)	9 (△92.6)	667 (133.9)	124 (18.4)	611 (22.2)	887 (32.4)	380 (38.8)	354 (△6.4)	93 (△0.5)	171 (10.1)	137 (9.9)	82 (△34.2)
	누계 (증감률)	477 (13.4)	1,179 (34.7)	120 (△60.4)	1,404 (12.3)	336 (19.3)	1,754 (21.0)	2,193 (31.5)	1,070 (31.9)	996 (△7.1)	319 (15.6)	368 (△35.3)	384 (14.5)	239 (△29.6)
중남미	당월 (증감률)	165 (30.5)	154 (50.7)	3 (17.3)	333 (△14.1)	38 (△3.7)	215 (△10.4)	276 (△21.8)	212 (18.3)	226 (△4.5)	108 (△44.1)	44 (△60.0)	50 (△2.0)	52 (△28.8)
	누계 (증감률)	471 (47.1)	392 (25.9)	157 (499.2)	1,526 (44.2)	129 (△10.1)	737 (6.9)	779 (△18.1)	595 (12.9)	682 (△5.7)	306 (△37.8)	144 (△50.8)	137 (△1.0)	151 (△21.2)
중동	당월 (증감률)	7 (11.6)	154 (5.1)	24 (△60.9)	17 (△92.0)	6 (△1.0)	338 (△13.6)	416 (△22.1)	171 (△23.0)	99 (△22.7)	44 (32.9)	19 (△46.5)	52 (△26.0)	73 (△14.1)
	누계 (증감률)	20 (32.7)	448 (5.6)	262 (50.4)	292 (△4.5)	31 (△15.0)	811 (△11.9)	1,166 (△3.2)	505 (△6.7)	355 (△6.0)	94 (1.7)	70 (△45.7)	147 (△16.4)	240 (△12.8)
CIS	당월 (증감률)	6 (55.9)	44 (34.9)	9 (31.0)	1 (△99.6)	9 (4.5)	130 (23.8)	242 (36.3)	43 (20.5)	159 (△1.2)	3 (△13.9)	8 (141.1)	18 (0.4)	13 (△16.2)
	누계 (증감률)	17 (70.7)	129 (43.7)	24 (30.4)	3 (△99.0)	22 (△21.0)	349 (33.5)	630 (47.9)	134 (48.5)	434 (7.0)	20 (57.9)	23 (36.4)	53 (16.9)	44 (△8.4)
품목별 총수출	당월 (증감률)	10,804 (44.2)	4,087 (0.7)	3,030 (0.8)	1,994 (△31.0)	1,058 (62.5)	4,729 (6.1)	3,763 (△8.6)	2,772 (6.2)	1,942 (△11.1)	1,957 (△16.5)	1,763 (△15.5)	1,243 (1.4)	660 (△22.0)
	누계 (증감률)	29,489 (45.9)	12,359 (8.2)	10,006 (15.1)	6,912 (△0.9)	2,804 (43.4)	12,851 (9.3)	9,803 (△4.4)	8,138 (3.4)	5,456 (△11.9)	5,628 (△15.4)	4,589 (△19.1)	3,406 (4.9)	1,885 (△17.5)

## 참고2

## 지역별 · 월별 수출 실적

(단위: 백만 달러, 전년동기대비 %)

지역	'17년 전체	'17년										'18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중국	142,115	11,656	10,590	10,653	10,675	10,791	11,912	13,541	12,580	14,001	13,848	13,393	11,520	13,591
	(14.2)	(11.9)	(10.2)	(7.3)	(4.8)	(6.5)	(15.6)	(23.6)	(13.5)	(20.4)	(14.9)	(24.5)	(3.6)	(16.6)
미국	68,611	6,201	6,036	5,524	5,981	5,661	5,953	6,598	4,727	6,382	5,296	5,160	4,689	6,138
	(3.2)	(△5.3)	(3.6)	(△2.6)	(△1.2)	(7.0)	(23.5)	(28.6)	(△12.5)	(11.5)	(△7.8)	(4.4)	(△11.7)	(△1.0)
베트남	47,749	4,330	4,517	4,153	4,319	3,637	3,755	4,734	3,865	4,412	4,059	4,276	3,628	4,188
	(46.3)	(55.6)	(63.0)	(56.9)	(61.9)	(29.1)	(36.5)	(69.3)	(33.9)	(46.3)	(27.2)	(53.2)	(14.0)	(△3.3)
일본	26,827	2,396	2,108	2,183	2,351	2,162	2,107	2,516	1,848	2,520	2,450	2,585	2,459	2,626
	(10.2)	(16.8)	(18.7)	(6.9)	(9.3)	(4.6)	(4.8)	(16.1)	(△12.1)	(10.8)	(10.2)	(21.4)	(20.2)	(9.6)
인도	15,056	1,362	1,211	1,149	1,169	1,570	2,034	1,152	899	1,109	1,161	1,221	1,163	1,215
	(29.8)	(14.1)	(27.2)	(28.9)	(24.8)	(78.2)	(135.2)	(20.7)	(△5.7)	(6.0)	(7.0)	(9.7)	(3.2)	(△10.8)
아세안	95,252	8,388	8,346	8,119	8,015	8,351	7,539	9,119	7,399	8,327	8,314	8,339	7,596	8,580
	(27.8)	(42.6)	(19.5)	(36.3)	(26.9)	(31.4)	(23.8)	(44.9)	(17.8)	(14.1)	(29.4)	(37.5)	(4.5)	(2.3)
EU	54,043	4,271	6,421	4,822	4,397	4,311	4,657	4,618	3,989	4,078	4,469	4,498	4,441	5,305
	(15.9)	(△8.8)	(64.8)	(21.9)	(20.3)	(10.3)	(43.2)	(21.9)	(2.5)	(2.7)	(△9.2)	(10.5)	(12.9)	(24.2)
중남미	28,099	2,455	2,273	2,112	2,427	2,194	2,290	3,510	1,886	2,326	2,200	2,610	2,408	2,263
	(10.4)	(21.4)	(30.2)	(2.0)	(△5.8)	(△7.8)	(16.3)	(65.9)	(△13.0)	(5.7)	(7.2)	(34.5)	(△3.0)	(△7.8)
중동	24,397	2,519	2,130	2,001	2,037	1,862	1,845	2,070	1,660	2,260	2,026	1,954	1,889	1,951
	(△7.0)	(9.8)	(△4.5)	(△3.3)	(△6.5)	(△5.6)	(△0.8)	(8.5)	(△34.3)	(△13.6)	(△19.1)	(4.3)	(△9.9)	(△22.6)
CIS	9,211	884	739	769	1,210	851	710	783	578	731	672	739	796	870
	(33.7)	(56.5)	(57.5)	(33.6)	(72.0)	(20.8)	(31.5)	(40.6)	(△7.4)	(13.5)	(10.8)	(48.4)	(1.5)	(△1.5)
월별 총수출	573,694	48,638	50,844	44,927	51,272	48,830	47,106	55,115	44,791	49,707	49,040	49,248	44,609	51,583
	(15.8)	(13.1)	(23.8)	(13.1)	(13.4)	(19.4)	(17.4)	(34.9)	(6.7)	(9.7)	(8.8)	(22.3)	(3.3)	(6.1)

## 참고3

## 유망소비재 · 고부가가치 품목 지역별 수출 실적 (31~331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전년동기대비 %)

지역명	품목명	유망소비재 품목						고부가가치 품목		
		농수산물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생활용품	패션의류	OLED	SSD	MCP
중국	당월 (증감률)	110 (10.9)	238 (38.8)	30 (66.0)	13 (△14.6)	99 (△9.8)	41 (6.8)	264 (△23.3)	184 (88.9)	666 (68.4)
	누계 (증감률)	261 (△3.0)	580 (30.9)	66 (47.7)	36 (6.7)	266 (△7.4)	111 (4.3)	681 (△35.7)	554 (104.9)	2,159 (105.4)
미국	당월 (증감률)	93 (22.8)	38 (8.0)	26 (88.2)	15 (21.5)	103 (4.2)	26 (14.1)	0 (△25.6)	224 (117.0)	6 (△71.5)
	누계 (증감률)	244 (12.9)	112 (15.5)	57 (△7.3)	38 (23.2)	271 (7.0)	73 (8.7)	2 (2.1)	551 (77.6)	9 (△85.4)
베트남	당월 (증감률)	41 (△1.2)	19 (111.4)	11 (△17.8)	1 (△34.4)	44 (17.6)	48 (7.0)	407 (34.7)	0 (△82.3)	302 (45.4)
	누계 (증감률)	126 (16.8)	42 (72.3)	33 (△1.8)	2 (△18.7)	129 (34.7)	124 (7.2)	1,122 (67.5)	1 (△30.7)	896 (170.5)
일본	당월 (증감률)	172 (△0.8)	29 (42.7)	21 (△8.9)	6 (26.5)	64 (0.0)	40 (△0.6)	3 (696.3)	11 (72.9)	24 (85.2)
	누계 (증감률)	475 (5.2)	80 (62.7)	65 (0.6)	14 (8.5)	182 (△0.7)	104 (0.4)	7 (386.6)	29 (91.2)	55 (47.3)
인도	당월 (증감률)	1 (△38.2)	1 (10.5)	3 (△3.4)	1 (△10.7)	13 (△7.8)	0 (△9.4)	0 (144.0)	1 (379.7)	44 (123.2)
	누계 (증감률)	4 (7.1)	3 (79.4)	7 (△38.1)	4 (△6.8)	39 (△22.2)	0 (△3.7)	2 (94.0)	2 (275.8)	93 (160.3)
아세안	당월 (증감률)	158 (13.9)	63 (30.3)	28 (△4.5)	6 (△3.5)	95 (6.1)	72 (△3.7)	413 (36.1)	10 (△30.1)	318 (51.2)
	누계 (증감률)	426 (19.6)	153 (29.0)	80 (3.7)	19 (8.1)	266 (14.9)	187 (1.0)	1,137 (68.8)	29 (△2.1)	948 (179.5)
EU	당월 (증감률)	35 (3.1)	18 (60.2)	135 (103.5)	12 (5.6)	62 (9.8)	20 (55.7)	28 (△27.7)	87 (32.8)	6 (△46.1)
	누계 (증감률)	97 (11.3)	48 (59.5)	264 (55.1)	33 (12.6)	188 (20.2)	49 (27.8)	107 (9.8)	235 (35.2)	34 (△16.6)
중남미	당월 (증감률)	8 (△36.3)	1 (91.9)	22 (31.7)	2 (△16.5)	27 (△9.3)	1 (△31.3)	15 (△44.0)	28 (△1.3)	28 (58.3)
	누계 (증감률)	40 (20.3)	3 (59.2)	51 (11.5)	5 (△13.5)	78 (△11.2)	5 (0.9)	40 (△54.0)	103 (△14.8)	106 (157.3)
중동	당월 (증감률)	20 (△68.9)	2 (4.3)	13 (73.6)	4 (△1.4)	26 (△15.9)	2 (△71.6)	2 (190.3)	0 (118.8)	2 (290.6)
	누계 (증감률)	71 (△49.9)	10 (29.4)	30 (50.2)	13 (3.8)	75 (△9.4)	6 (△47.6)	3 (△8.8)	1 (66.5)	5 (448.8)
CIS	당월 (증감률)	18 (△6.0)	20 (87.8)	4 (6.4)	6 (138.9)	23 (△5.5)	1 (△57.0)	0 (△51.8)	4 (0.1)	1 (△3.7)
	누계 (증감률)	53 (16.2)	44 (77.9)	12 (63.1)	17 (76.7)	69 (17.7)	3 (△35.1)	2 (311.7)	10 (92.8)	4 (101.0)
품목별 총수출	당월 (증감률)	730 (1.8)	620 (38.9)	343 (71.3)	74 (5.9)	596 (△0.2)	224 (5.2)	731 (1.7)	682 (90.6)	2,809 (73.6)
	누계 (증감률)	1,987 (5.1)	1,469 (27.5)	782 (41.2)	198 (13.8)	1,657 (4.0)	588 (3.5)	1,991 (3.2)	1,878 (78.2)	7,472 (85.0)



### 작성자

- ◆ 중국지역본부 이지훈    ◆ 유럽지역본부 김선우
- ◆ 북미지역본부 차성욱    ◆ 중남미지역본부 정석수
- ◆ 호치민무역관 황홍구    ◆ 중동지역본부 이광일
- ◆ 뉴델리무역관 임성식    ◆ 중국지역본부 이지훈
- ◆ 일본지역본부 김한나    ◆ CIS지역본부 최진형
- ◆ 동남아시아지역본부 김준성    ◆ 무역동향분석팀 김건숙



## Global Trade Report 18-005

### 2018년 3월 수출 동향

지역별 수출 호부진 요인 및 특이 동향

발행인 | 권평오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8년 4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http://www.kotra.or.kr)  
 문의처 | 무역동향분석팀  
 (02-3460-7584)

ISBN : 979-11-6097-704-2 (95320)



# 2018년 3월 수출 동향

- 지역별 수출 호부진 요인 및 특이 동향 -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